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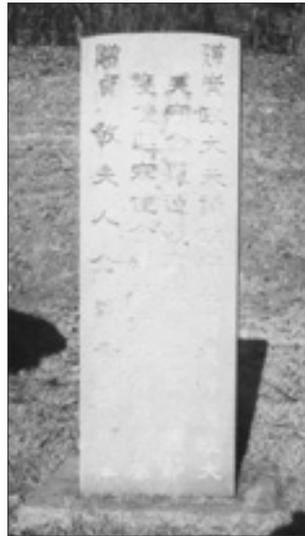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14世祖 禮曹參議 全羅觀察使公 諱：權 墓碣銘



▶ 14세조 예조참의 전라관찰사공 휘 권 묘소



▶ 묘비석

공의 이름은 권(權), 字는 성가(聖可), 청송심씨가 벼슬로 제일 빛났으니 세상에서 동경(東京)의 마(馬) 등(鄧)씨에 비교하였다.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는 개국 원신(元臣) ①인데 충혜공(忠惠公) 연원(連源)에 이르러서 직위가 영상(領相)이었다. 아들 강(綱)을 낳으니 국구(國舅)로서 청릉 부원군(靑陵府院君)이니 이 분이 공의 고조부이다. 공의 아버지는 희세(熙世)인데 흥문관 교리이고 옥과현감 엄(淹)의 아들로서 영의정 충정공(忠靖公) 휘 열(悅)에게 출후(出後)②했다. 옥과(玉果)③는 청양군(靑陽君) 의겸(義謙)의 아들로서 백부의 뒤를 잇고 충정은 충익공(忠翼公) 충겸(忠謙)의 아들로서 숙부의 뒤를 이었으니 四會祖가 다 청릉의 아들이다. 어머니 밀양박씨는 현감 안정(安鼎)의 딸이다. 계미(1643)년 7월 9일에 공이 태어났다.

을묘(1675)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였고 임술(1682)년에 증광시(增廣試)④ 문과에 급제하여 의정부에 예속되었다가 추천으로 한림원에 들게 되고 정언 지평을 거쳐 기사(1689)년 선위(禪位) 사건으로 남해로 귀양갔다가 갑술(1694)년에 풀려나서 흥문관 수찬 교리 헌납 이조좌랑이

되고 지제교에 문학을 겸했다. 다시 의정부 사인에서 응교와 보덕으로 옮기고 집의를 거쳐 승지에 오르고 병조참지와 예조참의가 되었다.

정축(1697)년에 전라감사에 임명되었는데 4월 15일 갑자기 일어난 병으로 순영(巡營)⑤에서 죽으니 향년 55세였고, 양근군 남쪽 가조골(加助谷) 술좌(戌座)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전의 이씨인데 관찰사 만웅(萬雄)의 딸이다. 무남독녀를 낳아 판관 조태수(趙泰壽)에게 출가시키고 침주(僉樞)인 만형의 둘째 아들 봉서(鳳瑞)를 양자로 삼았으니 벼슬이 의금부 도사였다. 봉서는 두 아들을 두었으니 맏아들 호(浩)는 청정이고 둘째 아들은 수(洙)이다. 조태수가 두 아들을 두었으니 준명(駿命)은 진사이고 귀명(龜命)은 생원이다. 손자인 첨정이 一男二女를 두었으니 아들은 유현(維賢)이고 맏딸은 왕세자 빈(王世子嬪)에 책봉되고 둘째 딸은 선비 송징계(宋徵啓)에게 출가했다.

공은 풍모와 도량이 바르고 침착하며 기상이 온화하고 맑아서 남과 웃고 말할 때 정성스럽고 너그러움이 있었다.

기현읍에서 억울한 옥사(獄事)가 있었는데 이상(李翔)이 헌장(憲長)⑥으로서 자기가 증거를 마련하며 힘으로 밀어부치는지라 안찰사(按察使)가 공에게 위임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옥리(獄吏)가 자백하였으나 이상에게 포섭당한 옥졸에게 거칠게 아니하니 사람들이 공의 관대함은 칭찬하였다.

간관들의 이사명(李師命)에 대한 탄핵사건에 공이 이사명과의 연고 관계로 그 마음을 알고 있었고 당시 공론이 과격하였는데 지평(持平)이 편파적으로 용서하여서 이 때문에 오래도록 지방으로 추방되었다. 대관(臺官)인 유성운(柳成運)이 공에게 사명을 구제할 당시 玉堂에서 기록을 담당했다 하고 어떤 이는 이 일을 갖고 공을 한하는 지라 내가 경연청의 책임자로서 동료들에게 말하였었다.

오늘 공론을 가려 심성가(沈聖可)를 용서할 생각이니 누가 옳은 지를 가려내도록 하시오. 기사(1689)년에 첫 번째 사람이 옥사와 관련하여 여러 번 공을 끌어들이, 죄인과 관련시켜서 공은 조태구(趙泰考)와 이징명(李徵明)과 조형기(趙亨基)가 함께 체포되어 마침내 섬으로 가게 되니 실로 뜻하지 아니한 관재(官災)였다. 2년의 기한이 되어 충주로 옮기고 중전이 복위됨에 옛 사람이 차례대로 복직되어 공이 비로서 빛을 보게 되고 크게 떨쳐 지위가 튼튼하고 명성이 퍼졌으나 지조를 지키고 처져 있을 때와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성품이 화후(和厚)⑦하여 차마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하였다. 조정에 있을 때는 의논이 늘 평온하고 너그러웠으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좋아했고 비록 속이고 비탈게 말하더라도 다시 캐내지 아니하고 시비 거리가 생겨 관계 세도자(世道者)가 위해서 두둔하고 몰아 부치고자 해도 세도와 이해(利害)로써 뜻을 삼은 적은 없었다. 친척이나 조정에서도 스스로 진실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척신(戚臣)이었으나 더욱 삼가고 두려워하니 고관(高官)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다.

2면에 계속

公 告

青松沈氏大宗會

三十八回定期總會開催

二 八年度第三十八回定期總會를 다 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公私間 다망하실 줄 사료되오니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를 仰望하나다.

다 음

日時：二 八年 五月 二日(金曜日)

午前 十一時

場所：서울중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 三층)

電話：(一)七四四一 六七七

會費：壹萬원

부의안건

一 七년도 회무보고

二 七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승인의 건

三 八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四 八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산(안) 승인의 건

五 기타 宗務에 관한 사항

二 八年 四月 日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명구

문의처：(一)二二六七一七八五七

별도로 개인별 통지가 없아오니 유의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묘(1675)년 이후 역절(逆節)⑧ 이 몰래 숨어드니 김석주(金錫胄) 공이 깊이 걱정하고 공의 식견을 알므로 함께 일을 계획하려 했으나 공은 이런 것이 선비가 할 본분이 아니라고 하며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멀리하니 김공이 힘써 공에게 매달렸으나 끝내 거절하였다.

한림원에 있을 때는 학유(學儒)⑨ 김성대(金盛大) 등이 팔도에 통문을 보내어 윤명재(尹明齋) 공을 얻어 묶고자하니 공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관료들과 더불어 김성대를 벌주니 이진안(李震顔)이라는 자가 투소(投疏)를 하여 학유(學儒)들을 구출코자 함에 공이 소를 올려 변명하니 임금께서 비답을 내리시고 진안에게 벌주도록 명하였다.

그 뒤 대신들의 말씀으로 인해 공과 관료들이 파직을 당하고 연업(燕業)⑩을 시도하다가 중도에서 사망하니 모두들 아까워하였다. 공이 조정 일을 볼 때는 문서처리를 번거롭지 않게 하고 잡되지 않으며 맑고 너그럽고 간명하게 하여 일을 처리함에 백성들을 교란하지 않게 하니 섬에서 귀양처를 연기(燕岐)에 옮기니 연기군의 사민이 전대에 쓸을 담아 말에 실어 도와 주니 그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

공이 일찍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함에 늘 즐겁게 그 정성을 다하고 만행을 섬김에 얽한 부친같이 하니 형이 효자의 깊은 애정으로도 어찌 이보다 더 잘 하겠냐고 칭찬하였다. 이모 박씨 부인을 섬길 때 몹시 삼가며 형제 자매

들과 더불어 시저를 펴고 둘러앉으니 그 거칠고 늙고 병든 자와 서쪽 원척까지도 공의 대우로 의식과 혼취(婚娶)⑪를 치르는 이가 많았다.

공은 문사(文辭)로써 자랑하지 않으며 붓을 잡으면 민첩하고 사리가 모두 활달하였다. 일찍부터 고사(古史)를 읽고 그 득실을 논하여 근세에는 당화(黨禍)⑫에 함께 참여하고 그 연유를 논하며 저서 한 편과 시문 몇 권을 집안에 소장하였다. 나는 소시적(小詩)에 공과 신계회(申季晦)와 더불어 서로 잘 사귀고 앞뒤로 조정에 나아가게 되어 항상 서로 반기며 애연(靄然)하게 지낸 지 20년이 채 못되어 공과 계회(季晦)는 모두 늙기 전에 떠나니 슬프다.

공의 외손인 조준명군(趙駿命君)이 이부인(李夫人)의 명을 받들어 가장(家狀)을 구비하여 와서 묘문(墓文)을 청함에 그 문사가 슬프고 처절하여 삼가 받아서 명하였다.

명(銘)에 이르되, 세상 사람들을 보니 마음은 좁고 기는 웅렬하네. 청관에 있는 요직은 그 이론만 내세워 명성만을 취하니 그 화하고 부드러움이 적고 처지가 풍만한 자는 그 의용(儀容)⑬을 자랑하고 교만한 태도가 생기니 겸손하고 두려움이 없네. 우리 성가(聖可)같은 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고 그 명예

를 거스르지 않으며 그 가득함을 싫어 하고 그 행실이 넘치지 않았네.

늙어서도 편하게 안 지내고 공직에서도 자만 아니하여 그 향기를 가리개로 덮고서 그 나머지 세상에 끼쳤네. 슬프다! 이 글을 보는 이는 가히 공의 평생을 알 것이다.

최석정(崔錫鼎) 지음

주(註)

- 1. 원신(元臣): 으뜸가는 공신.
2. 출후(出後): 양자들.
3. 옥과(玉果): 지명이나, 여기서는 옥과현감 임을 이름.
4. 증광시(增廣試): 과거의 종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르게 됨.
5. 순영(巡營): 지방의 감영.
6. 헌장(憲長): 책임 취조관.
7. 화후(和厚): 온화하고 후덕함.
8. 역절(逆節): 하늘의 뜻밖한 도리를 어김.
9. 학유(學儒): 학문하는 선비.
10. 연업(燕業): 벼슬하지 않고 한가하게 지내는 것.
11. 혼취(婚娶):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12. 당화(黨禍): 사색 당쟁으로 인한 화근.
13. 의용(儀容): 거동과 용모.

朝鮮後期 天才畫家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겸재(謙齋)에게 그림을 배우다 - ①

현재가 돌아간 다음 해인 영조 46년(1770) 경인년에 심익운(沈翼雲 1734-1783)은 현재거사묘지(玄齋居士墓志)를 짓는다. 심익운은 현재의 친형으로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 1641-1683)의 장자인 당숙 심정보(沈廷輔 1658-1727)의 양자가 된 심사순(沈師淳 1701-1723)의 손자이다.

비록 양손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형수인 심사순의 처 전주 이씨(1701-1777경)가 손수 받아서 키워냈으므로 현재의 행장을 가장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묘지에서 현재가 어렸을 적에 겸재에게 그림을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묘지 전문을 옮겨 보겠다.

현재 거사를 이미 장사지내고 다음 해인 경인(1770)년에 익운이 돌에 새기어 묘지로 한다. 그 묘문(墓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씨는 청송을 본적으로 대대로 공훈과 덕망이 드러났었는데 우리 만사(晩沙) 沈之源 1593-1662)부군에 이르러

드디어 크게 번창하고 현달했다. 거사는 그 증손이다. 거사는 태어나서 두어살 되자 문득 물건들 형상지를 줄줄 스스로 터득하여 모나고 둥근 형상을 그려냈다. 어린시절 정원백(鄭元伯, 謙齋 鄭敷, 1676-1759)을 스승으로 삼아 수묵 산수를 했었는데 옛사람의 화결(畫訣)을 궁구해보고 나서는 눈이 닿는 대로 마음이 이해하여 비로소 그 하는 바를 일변하니 아득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해서 힘써 그 고루함을 씻어냈다.

대체 중세(重歲, 중년) 이래에 이르러서는 녹여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내니 그 교묘함을 기대하지 않아도 교묘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일찍이 관음대사(觀音大師) 및 관성제군(關聖帝君) 상(像)을 그렸었는데 모두 꿈결에서 얻어 냈었다. 연경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연경시중에 거사의 그림을 파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오직 그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50년간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붓을 잡고 형체를 그리고 채색을 입히지 않은 날이 없었다. 거의 궁천(窮賤)이 고통스럽게 될 수 있다거나 오욕(汚辱)이 치욕스럽게 될 수 있음을 살피지 않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신명(神明)에 깊숙이 통하여 멀리 다른 습속(나라에)까지 전파되고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사모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림에 있어서 거사는 종신(평생)토록 힘을 써서 능히 대성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거사가 이미 돌아감에 가난으로 염습할 수 없어 익운이 여러 부의를 모아 그 장례 용구를 도우니 아무 달 아무 날에 그 아들 육진(郁鎭,

1736-1804)이 파주 분수원 아무자리 언덕에 장사지냈다. 만사부군 묘소 동쪽 몇리에 있다.

명(銘)으로 이어서 말한다. 거사의 이름은 사정(師正)이고, 이숙(頤叔)은 그 자(字)다. 아버지 이름은 정주(廷胄)이고 어머니는 하동(河東) 鄭씨이다. 부인은 있으나, 기른 자식 없어, 종형의 아들을 아들로 삼았다. 수명 63세로 죽어 여기 장사지냈다. 아! 뒷사람아, 그 훼손치 말라.

그러나 현재가 겸재에게 배웠다는 사실은 이미 현재 26세 때인 영조 8년(1732) 입자년 4월 초승에 선주(仙舟) 남태응(南泰應, 1687-1740)이 청죽만록(聽竹漫錄)을 지으면서 화사(畫史) 편외 화사보록(畫史補錄) 상(上)에서 확실하게 밝혀놓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 전체를 옮겨 보겠다.

육오당(六吾堂. 鄭慶欽, 1620-1678)은 네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포도를 잘했다고 한 아들은 인물을 잘했으며 한 아들은 14세에 요절했으나(維謙, 1650-1663) 타고난 재주가 더욱 높았으니 싹 나고 패지 못한 사람이다. 육오당의 누리동생인 니산(尼山) 현감 권육(權育)의 안사람도 화품(畫品)이 역시 빼어나서 아이 때 장난으로 벽위에 한 고목을 그렸더니 자못 똑같이 느껴져 새들이 진짜인줄 잘못 알고 때로 간혹 날라들었다.

손자인 권경(權敬)도 바야흐로 포도로 세상에 이름나 있다. 정유점(鄭維漸, 1655-1703)은 그 화업을 사위에게 전하니 곧 심정주(沈廷周, 1678-1750, 周는 靑의 잘못)라는 이로 권경과 아울러 일컫는다. < 3면에 계속

Public notice for the 55th regular meeting of the Seongso Shim Family Grand Assembly. Includes date (April 11, 2008), lo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airperson, Shim Myung-gu.

심정주의 아들 또한 산수 인물을 전공해서 새로 유명하나 대개 정선(鄭敼, 1676-1759)에게 배워 그 거친 필적을 얻었으니 대체로 족히 불만함이 없다.

한집안 남녀에서 외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림을 잘했으니 예전에도 또한 듣지 못했을 만큼 이채롭다. 그러나 정밀하고 교묘하여 이름을 드날린 이는 없다. 유점이 남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의 인물화가 아버지보다 낫다 했었는데 대개 육오당이 인물화를 잘하지 못한 까닭이다. 세상에서는 망발이라 일컫는다.

남태응이 일부러 겸재를 무시하고 깎아 내리기 위해 그

에게서 배운 현재도 보잘것없다고 혹평한 내용이다. 남태응은 당시 46세의 장년이었는데 57세의 겸재와 26세의 현재를 이토록 싸잡아 폄하하고 있으니 그림에 대한 취향이 라기보다는 어떤 사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던가 한다. 당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회화사상 진경산수화와 조선남종화의 시조로 각각 영원히 추앙받는 위대한 두 화가를 나중에 두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면 남태응이 화사를 쓸 만큼 감식안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화사에서 당대 화가로 조선전기화풍과 진경풍속 및 조선남종화풍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공재(恭

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를 최고의 화가로 꼽고 그를 추장하는 것으로 지면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이토록 편향된 회화사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살펴볼 일이다.

더구나 남태응은 겸재 선대의 외가 후손으로 겸재가 그의 12촌 척대부(戚大夫, 친척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먼 친척이기도 했다. 남태응의 7대조인 예조참판 남응운(南應雲, 1509-1587)이 겸재의 고조부 정연(鄭演, 1541-1621)의 장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태응이 이처럼 겸재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당색에 따른 이념갈등 때문인 듯하다.

대유 심대운공의 발견 (大儒 沈大允公의 發見)

음지(陰地)에서 양지(陽地)로

공은 성장하면서 흥년이 들고 가내가 너무 궁핍하여 학업에만 열중 할 수가 없었다. 노모를 봉양하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었다. 대운공이 처음으로 결행한 것은 입읍지계(入邑之計)였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득이 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때 공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전쯤으로 추정된다. 처음 들어선 곳이 안성(安城) 동리였다. 공은 이곳에서 장사를 하여 꽤 이윤을 남겼다. 차차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지금의 당면 과제는 유배지에 묶인 증조모와 조부의 유해를 모셔오는 일이다.

공은 36세(1841) 되던 해 10월 초에 길을 떠나 이듬해 4월에 돌아왔다. 공은 3구의 유해를 모셔왔는데 증조모와 조부 이외에 또 대고모 한 분의 유해도 함께 모셨다. 증조부에게는 당시 과년한 딸이 한 분 있었는데 증조모와 함께 광양으로 귀양왔다가 또한 자결하여 유해가 함께 묻혀 있었다. 이렇게 모셔온 유해는 선영에 안장하였다.

공은 30대 후반에 이미 저술을 하였는데 37세에는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5책을 완성하고 38세에는 중용훈의(中庸訓義)와 대학교정(大學考正)을 완성하였다.

공은 그 후에도 東里를 떠나지 않고 돈 버는 데에 열중하였다. 40세 무렵에는 두 아우가 경영하는 반상공방(盤床工房)에서 함께 일하였다. 그 시절에 공방은 천민이나 하는 직업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두 동생이 기술을 배우게 되어 공방을 차리게 되었으며 일을 하면서 말하기를 육체는 고생스러우나 마음이 한가롭고 무사하니 문득 경사

(經史)를 토론하여 정미한 뜻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47세 경에는 약방을 경영하여 돈을 많이 벌게되었으며 이제는 다시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는(晝耕夜讀) 선비로선 당연시되었다. 당시사대부 학인 들은 일반의 형태와는 전혀 달리 경제현실이 깊숙이 합류해 있었으며 특히 공은 돈버는 일을 하면서 학문을 하고 저술을 하였던 점이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46세에는 논어주석서(論語註釋序) 2책을 완성하였다.

이렇듯 전성기에는 몇 달에 책 한 권씩을 저술하였다 하니 그 뛰어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장서(藏書)는 부분적으로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된 저서가 50책, 한국 정신 문화연구소에 58책으로 두 곳에 소장된 것만 108책(족보, 경진보 수권 859페이지에 수록)이니 공의 저서만 보더라도 18세기를 통털어 몇 분 안 되는 大儒중 한 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공은 54세에는 경서채전변정(經書蔡傳辨正) 4책과 시경집전변정(詩經集傳辨正) 6책을 57세에는 복리전서(福利全書 : 경제서적을 묶어 복리전서라 하였다) 1책을 완성하였다. 그 후에도 공은 세상을 떠나던 67세까지 많은 책을 저작하였는데 그 중에도 정신문화연구소에 소장된 全史58책은 후한서(後漢書)에서 명사(明史)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의 정사를 초록한 것으로 그 저서의 폭과 학문의 근면함을 엿볼 수 있고 또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여名著서로 평가받고있다. 심대운 전집중 심대운의 학문 및 사교의 논리(思考의 論理) 중에 이러한 문장이 있다. 상략(上略) 사람이 되어 욕망이 없으면 목적과 다름이 없다. 언어 동작이며 시각 청각과 사고색색(思考食色)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되어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라 하겠는가! (福利全書 書云天生民) 이렇듯 욕망을 인간의 기본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논법은 인욕은 하늘이 인간에게 풍부한 본성(欲者, 天命之性也 福利全書 書云天生民)이라는데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 성육설은 심리적 동기에 근거한 점에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의 성기호설(性嗜好說)과도 상통하는 이론이라 하겠다 라고 적고 있다.

복리전서(福利全書)는 유가경전의 요지를 간략하고도 알기 쉽게 해설하여 보통 남녀들의 생활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엮은 책이다. 만인의 복리를 목적하는 실로 민중적 경전의 성격을 취한 것이었다. 다가하시는 심대운공이 남긴 여러 가지 저작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시작은 무정 정만조(戊亭 鄭萬朝 : 1858-1936)로부터였다. 정만조의 부친인 정기우(鄭基雨)가 심대운의 문학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정만조 또한 심대운 학파에 친연성을 가진 인물임은 분명하다. 다가하시는 정만조에 대해 무정과 나는 전후 35년 동안 망년지교(忘年之交)를 맺어 변함 없고 나는 그에게 무한한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털어놓고 있다. 하곡 정재두(霞谷鄭齊斗 : 경종, 영종 때의 대학자) 이래 소론가에서 양명학을 은근히 전승했다는 다가하시의 서술 또한 그 자신이 직접 물어서 들은 지식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심대운의 학문 연원은 정재두(鄭齊斗)에게 달고 陽明學의 내밀한 흐름이었다는 말은 출처가 다른 아닌 양명학을 가학으로 전승한 소론가에 있다고 적고 있다. 공은 참화를 입은 악 의 증손으로 그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伯仲 조부 鎭公과 증조부 악 의 뒤를 이은 대학자로서 공이 세상을 떠난 지 133년만에야 그 저서들이 심대운 전집으로 발행하게 된 것은 참으로 천우신조(天佑神助)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심대운 전집의 출간은 19세기 조선 사회가 배출한 큰 학자요 특출한 사상가 한 분을 새로 등 록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끝으로 심대운전집(沈大允全集)을 출간 해 주신 發行人 徐正燾 成均館大學校 총장님과 편집인 林熒澤씨 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 끝 >

- 문화이사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 ◆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별도 구입(CD롬 : 20,000원 /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 世考選, 祭享笏記, 手帖, 鬻지 포함, 종보축쇄판)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송 금 안 내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중회 심명구

농 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084-01-179314
대중회 심명구

청 송 심 씨 대 중 회
전화 : (02)2267-7857

조선시대 栗谷 李珥의 경장론과 폐법의 고찰 -

- 沈星求 이사 -

1. 서언
2. 본론 - 조선전기의 정치적 사회관
 - 1) 율곡의 국가관과 사회사상
 - 2) 율곡의 경장론과 폐법으로 개혁을 주장
 - 3) 파주향약(坡州鄉約)에서 선양(先養) 후교(後教) 강조
 - 4) 율곡의 철학관과 이기심성론의 전개
3. 결론 - 이기치묘의 발전적 원리와 현대적 관점

1. 서언

조선시대의 격동기에서 그 시대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장과 폐법을 주장하며 그 당시에 사회상을 지적해 놓으면서 공사천(公私賤)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양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시사소(陳時事疏)처럼 세종대왕께서 때에 따라 시행하셨던 규례도 있다. 선각적이고도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시의 시대성을 뛰어넘어 여러 차례에 목숨을 걸고 많은 차(筭)를 올렸으며 만언봉사 일만천 육백여자를 선조 임금에게 올리면서까지 애국애족 하려는 내용들과 앞을 내다보는 내용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우리가 그분의 본뜻에 경의를 표하면서(논자가 선생에게서 사숙을 받은 한사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의 사회상과 율곡의 경장론과 폐법주장(개혁), 파주향약 및 율곡이기론의 특징적 요소와 그의 철학관, 율곡의 이기치묘의 현대적 관점을 논하고자 한다.

2. 율곡 이이의 태어남과 발자취

율곡은 1536년(중종 31년) 12월 26일 寅時 강릉부 북평촌 외가 오죽헌(烏竹軒)에서 태어났으며, 1584년 1월 16일 새벽 경성 대사동에서 만 47년 21일만에 운명하였다.

율곡은 명종 11년(1557) 22세 때 경상도 성주 곡산의 노경린의 딸 노씨와 결혼하고, 그 다음 해 23세(1558) 명종 13년 봄에 경북 안동에서 퇴계를 처음 상면한 바 있다. 이때 퇴계는 율곡보다 35세나 연장자로 이미 58세의 노대가였다.

율곡은 1558년 겨울 23세에 나이로 별시

해(別試解)에 天道策 : 이기심성론에 의한 결과를 논하는 것을 써서 장원을 하였다.

당시 老官들은 율곡의 천도책에 대하여 우리들은 몇 일 동안 생각해서 겨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율곡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참으로 천재다 라고 높이 평가했다.

율곡은 16세 1551년 5월에 모친상으로 어머니를 여윈 슬픔에 깊이 잠겨, 생사의 문제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한때 불학(佛學)에 몰두하였으나 곧 불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聖賢의 책을 취해 계속해서 공부하였다.

율곡은 금강산에서 돌아와 유학 공부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1556년에 자경문(自敬文)을 짓는다.

율곡의 자경문에서는
常二行一不義 殺一不事 得天下不爲底意思 存諸胸中

상이행일불의 살일불사 득천하불위저의 사 존제홍중

항상 한가지의 불의를 행하고 한사람의 무고한 이를 죽여서 천하를 얻고자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한다. 맹자에서 성자(聖子)의 심법(心法)을 논한 자경문 내용이다.

3. 본론-조선전기의 정치적 사회관

율곡은 1568년 선조 1년에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西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부교리(副校理)로 춘추기사관(春秋記事官) 36세에는 청주목사, 38세에는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며 율곡은 40세 이전 당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두루 거치면서 민생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율곡전서(栗谷全書)에 실려있는 많은 자문자답 형식의 문장과 34세 때의 동호문답(東湖問答) 39세 때의 만언소(萬言疏) 40세 때의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의 내용에서 민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정에서 시정할 것을 개진하면서 경장과 폐법을 주장하였다.

유학의 전통은 사람의 도덕 윤리로 자신을 수양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인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유학의 정치

관은 수기치인(修己治人)에 힘써 사람들에게는 각기 직분을 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물질생활과 정신활동도 중요시 한다. 공자(孔子)는 각 개인의 교육을 적성에 맞게 신분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주자는 이기론으로 천지만물의 구성체계를 해석하고 있으며 천지지리(天地之理)와 생생지리(生生之理)를 실천하려는 인류의 도덕적 근원으로 삼고 있다. 율곡은 한국의 역사에 빛나는 유학자로서 선진유학과 송대(宋代)의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에 풍부한 견해로 그의 학문적 가치는 크게 나타난다.

율곡학의 특색을 소개한다.

① 광범위한 주자학의 성리학설을 핵심 있게 간략히 쉽게 이해되도록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② 인민애물(人民愛物)이라 표현하면서 전통적 유가의 군왕정치를 당시한국사회에 실천하려 하였다. 율곡은 29세 이후부터 49세 때까지 20년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당시에 율곡의 정치에 관한 견해는 비교적 풍부하여 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율곡의 이기론, 성정론과 관련이 된다. 율곡이 제시한 인정사상(仁政思想)과 경장(更張) 그리고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등의 논리는 천지생생지리(天地生生之理)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사람의 생리(生理)는 天理의 실천이 되고 하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역사란 어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류공동체 생명활동의 과정이다. 공간이란 어느 민족과 국가 혹은 어느 지역이라는 지면상 횡적으로 펼쳐지는 활동적 현상을 가리키게 된다. 시간이란 종적인 측면에서 보는 활동과정을 가리키고 있다. 율곡이 하는 정치와 민생은 당시의 민생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민생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율곡 당시의 조선사회의 신분제도는 신분에 따른 특권과 제한이 서로 달랐다. 그러므로 율곡은 민생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경장(更張)을 위주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문제에서 일반백성과 천민 층의 신분문제에 관한 개혁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율곡의 사회사상, 정치사상, 역사철학은 모두 그의 이기론(理氣論)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본 논문 내용은 율곡의 사회사상과 역사철학에 관한 내용을 논자가 율곡선생에게서 사숙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沈영감 심민섭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各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데,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宗회기를 교체하거나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代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신청내용	宗회기(깃대포함) : 180,000원 宗회기(깃대제외) : 150,000원	

夷敬公宗會 任員名單

理 監 財 總 副 會 顧	事 務 務 務 務 務 務 務	事 務 務 務 務 務 務 務
載 萬 相 載 載 載 載 載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載 萬 相 載 載 載 載 載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載 萬 相 載 載 載 載 載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載 萬 相 載 載 載 載 載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載 萬 相 載 載 載 載 載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萬 英 泉 萬 萬 萬 萬 萬

曉窓公派宗會 任員名單

理 監 總 副 會 顧	事 務 務 務 務 務 務 務	事 務 務 務 務 務 務 務
承 寬 承 載 承 承 承 承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承 寬 承 載 承 承 承 承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承 寬 承 載 承 承 承 承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承 寬 承 載 承 承 承 承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承 寬 承 載 承 承 承 承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寬

生員公派 법국宗會 任員名單

理 總 監 副 會 顧	事 務 務 務 務 務 務 務	事 務 務 務 務 務 務 務
在 在 在 在 在 在 在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在 在 在 在 在 在 在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在 在 在 在 在 在 在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在 在 在 在 在 在 在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在 在 在 在 在 在 在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仁 成 烈 弘 昌 錫 昌 輔

信川公派 春川宗會 任員名單

理 總 監 副 會 顧	事 務 務 務 務 務 務 務	事 務 務 務 務 務 務 務
世 萬 萬 萬 萬 萬 萬	택 澤 澤 澤 澤 澤 澤	택 澤 澤 澤 澤 澤 澤
世 萬 萬 萬 萬 萬 萬	택 澤 澤 澤 澤 澤 澤	택 澤 澤 澤 澤 澤 澤
世 萬 萬 萬 萬 萬 萬	택 澤 澤 澤 澤 澤 澤	택 澤 澤 澤 澤 澤 澤
世 萬 萬 萬 萬 萬 萬	택 澤 澤 澤 澤 澤 澤	택 澤 澤 澤 澤 澤 澤
世 萬 萬 萬 萬 萬 萬	택 澤 澤 澤 澤 澤 澤	택 澤 澤 澤 澤 澤 澤

崇禮門과 定安公(휘:德符)



▶ 화재에 소실되기 전의 웅장했던 지난날의 모습

서울의 관문이며 우리나라의 얼굴이었던 국보 1호 송례문이 불타버렸다.

이 송례문은 개국과 함께 建造돼 지금까지 610년이 지나도록 한자리에서 굳건히 우리의 역사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 위대한 우리나라의 상징(象徴)이 한 순간 지각없는 한 村老에 의해 불타 무참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文化財가 타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7500만 민족의 혼과 함께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송례문의 역사는 조선초기(朝鮮初期)부터 시작된다.

서기 1392년 7월 17일, 李成桂의 易姓革命으로 조선이 開國되자 定安公은 그간의 모든 직책을 버리고 은거(隱居)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정안공은 태조 3년 1월에 太祖를 심방(尋訪)한 자리에서 태조로부터 송도수축(松都修築 : 開城)의 총괄자로 임명되어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다음

달에 임무를 완성하고 이해 9월에 다시 新都(漢城 : 지금의 서울) 조성도감(造成都監)의 判事에 제수되어 總治責任을 맞게 되었다. 정안공께서는 먼저 도시의 구획정리, 사직단(社稷壇), 종묘궁궐(宗廟宮闕)의 造成事業을 착수하여 太祖4년(1395년) 사직단, 종묘를 완성하였고 이어 390칸(間)의 궁궐을 조성하여 10월에 入宮하였다.

이 기간중에 정안공께서는 총59,500자(尺 : 18.2km)의 石城과 土城의 築城을 완료하였으며 잔여(殘餘) 공사를 계속하는 한편 崇禮門 造成工事가 착공되었다. 이 공사가 1398년에 준공을 보게되니 이 때에 이르러 정안공께서는 영삼사사(領三司事)에 제수되었다.

다음해에 門下府左政丞에 오르고 1400년에 지병으로 좌정승을 사임하고 다음해인 1401년(太宗1년)에 별세하시니 이때의 정안공의 나이가 74세 이시다.

지난 일을 살펴보면 정안공께서 17세되던 해 좌우위참군(左右衛參軍 : 종7품)을 임명받아 出仕한 이래 1400년(定宗2년)에 좌정승을 사직하기까지 56년 간의 세월을 한결 같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평생을 다 받치시었다.

정안공께서는 침략하는 外勢를 물리치고 內政에도 지대한 공을 세웠으나 그 치적중에도 漢城의 造成공사를 훌륭하게 완성시켰고 나아가 송례문 흥인문을 비롯한 8大門을 축조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여 정안공 할아 번님의 혼이 깃들여 있는 서울의 正門인 송례문이 불타버린 것은 우리 후손들로서는 그 송구스러운 심경을 가늠 길이 없다.

더욱이 송례문은 서울 성곽에 있는 木造建築物는 第一 오래된 것이라 하니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송례문의 현판이 고스란히 보존 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봉유설(芝峰 : 李晬光)에 보면 이 현판은 世宗大王의 묘이 되시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휘호(揮毫)라 하니 더

욱 소중한 문화재가 아닌가. 송례문은 건조한지 50년만인 1447(世宗29년)년에 개수가 있었고, 1479(成宗10)년에 중수를 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송례문은 또 성곽이 완성되면서 한성의 성내를 드나드는 正門으로 서울의 얼굴이 되었으며, 서울 남쪽에 있다하여 일명 南大門이라 불렀고, 중국 사신을 위시하여 각각의 인사가 출입하는 정문으로 삼았다.

서울 성곽에는 8大門이 지어졌는데 ① 正南에 송례문을 비롯하여 ② 正東에 흥인문(興仁門)을 東大門이라고 ③ 東南은 광희문(光熙門)으로 水口門이라 하였으며 ④ 東北은 弘化門이니 東小門이요, ⑤ 正北은 숙청문(肅淸門)이요 ⑥ 小北은 소덕문(昭德門)이니 西小門이요 ⑦ 正西에는 돈의문(敦義門)이 있고 ⑧ 西北은 창의문(彰義門)이 있다.

이 많은 역사를 청성백께서 일구어 놓은 업적이라 생각 하니 우리 모두의 후손들은 청성백께서 남겨주신 그 위대한 역사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음덕(蔭德)을 기립니다.

근일 뉴스를 보니 화재범이 하는 말이 남대문은 복원하면 되는 것이고 인명사고가 없으니 되지 않았는가. 나는 억울하다 라고 하니 그는 철면피에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이런 자와 한 하늘아래 살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남의 탓만 해서 무엇하겠는가

이제 바라는 바는 하루속히 송례문을 원 모습대로 복원하여 그전과 같은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다.

- 숙청문(肅淸門) : 北門 - 서울 4대문의 하나
- 돈의문(敦義門) : 西大門 - 서울 4대문의 하나
- 창의문(彰義門) : 자하문 <紫霞門> 서울의 4小門중의 하나로 현재 단 하나가 남아있음. 종로구 청운동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 청 부 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홀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뱃 지		1,000원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질단위 外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번지와 동 호 수 까 지 자세하게 기재, 집 전 화 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심명구)

2008년 春季 時享日表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 洪孚)	4월 5일	土	2월 29일	靑松邑 덕리 보광산	五	配位 順興安氏	4월 19일	土	3월 14일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中臺山所	4월 5일	土	2월 29일	靑松邑 부곡리 중대산	六	良惠公(휘: 石雋)	4월 25일	金	3월 20일	龍仁市 포곡면 동막동
二	閣門祗候公(휘: 淵)	4월 16일	水	3월 11일	咸悅邑 남당리 남당산	七	忘世亭公(휘: 璿)	4월 28일	月	3월 23일	南楊州市 오남읍 양지리
三	靑華府院君(휘: 龍)	4월 18일	金	3월 13일	安城市 당왕동 산19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月	3월 23일	驪州郡 능서면 英陵
三	配位 金氏	4월 18일	金	3월 13일	安城市 도기동 산64	王后	仁順王后	4월 27일	4월넷째요일	3월 22일	노원 공릉동(태릉內 康陵)
四	靑城伯(휘: 德符)	4월 20일	日	3월 15일	漣川 미산면 아미리 110	王后	端懿王后	3월 23일	3월넷째요일	2월 16일	구리시(동구릉內 惠陵)
四	配位 淸州宋氏	4월 22일	火	3월 17일	淸州市 분평동 산8		世宗大王	4월 8일	火	3월 3일	驪州郡 능서면 英陵
四	岳隱公(휘: 元符)	4월 30일	水	3월 25일	靑松郡 파천면 덕천 경의재		淑容沈氏	4월 20일	4월셋째요일	3월 15일	恩平區 진관동
五	安孝公(휘: 溫)	4월 5일	土	寒食	水原市 의의동		宗廟大祭	5월 4일	日요일	3월 29일	鐘路區 宗廟



대중회 부회장 심갑보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지도자의 결정

먼저 떠오른 인물이 박정희 전(前)대통령이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겠지만 5000년간 이어져 온 이 나라의 가난을 해결하고 1인당 국민소득 85달러의 빈곤한 나라를 2만달러의 중진국으로 성장시키는 바탕을 마련한 지도자로 박대통령을 인정하는데 만은 우리 국민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경제를 먼저 성장시켜야 민주화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제성장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도록 결정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흥망은 경제와 민주화를 어떤 순서로, 또 어떤 비중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필리핀과 구(舊)소련은 경제개방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실패한 좋은 예이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를 먼저, 민주화를 뒤에 놓아서 성공한 경우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 경부고속도로 및 포항종합제철의 건설이었다. 박대통령은 그 당시 국내외의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와 종합제철의 건설 없이는 조국의 근대화를 이룰 수 없다는 확신한 신념 아래 이 계획을 추진하여 성공

시켰다. 지금에 와서 이 두 위업이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덕에 지금의 민주화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참으로 위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여기 더하여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 선배기업인들의 결정도 큰 역할을 했다.

이병철 전(前) 삼성그룹회장의 반도체사업 추진결정, 정주영 전(前) 현대그룹회장의 조선사업과 자동차산업 추진 등 중화학공업 진출을 결정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시기 적절한 판단이 우리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철강, 조선, 통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터전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경제가 이러한 선배 경영자들에 의해 추진되어 온 결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의 현명한 의사결정 여부가 그 성패를 가를 것이다. 현재 국내외의 경영환경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시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자금을 들여올 것인가? M&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사의 가치사슬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종업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최고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다.

최고경영자는 좋은 실든 참모들이 수집한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처럼 리더의 자질 중 결단은 필수요소다.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합리성, 타당성, 시기의 적합성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데 경영상에서 최대의 위험은 결단을 미루는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결단을 미루면 회사는 표류하고 사기는 저하되어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종업원들은 회사가 마비되어 있음을 느낀다.

역사상 최고의 성공 컨설턴트라 할 수 있는 나폴레옹 힐은 우수부단이야말로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이며, 부를 축적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결단이 매우 느리다 라고 말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들이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함으로써 실기(失機)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심갑보(삼익 THK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기행문 泰山과 黃河 기행문 ②

호텔에서 소식을 끝내고 우리 일행은 태산(泰山)과 황하(黃河)를 보기 위하여 버스에 올랐다. 태산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라고 읊었던 기억이 난다. 태산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자연 유산으로 선정된 해발 1,545m의 천하제일의 명산이다. 태산은 곡부를 벗어나 태안(泰安)이라는 도시에 있다. 국태민안(國泰民安)에서 따온 도시 이름이다.

태안에 도착하여 태산에 오르기 위하여 케이블카를 탔다. 25분이 소요된다. 설악산 권금성을 케이블카로 오르던 생각이 난다. 권금성을 오를 때는 5분정도 걸리는데 그에 비하면 5배가 더 소요되는 시간이다. 케이블카에서 태산을 내려다보면 돌계단이 보이는데 진시왕이 이곳에서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기 위해 7,412개의 돌계단을 놓았다고 한다. 당대의 여제 측천무후도 태산에서 제를 올리기 위해 거대한 행차를 했다고 한다. 그 외 여러 제왕들이 모두 이 산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며 국태민안을 빌었던 것이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조금 오르니 천가라는 곳에 다다른다. 기념품 가게와 정자와 전망대가 시야에 확 들어온다. 하지만 주변은 관광객이 반 호객 상인들이 반인 것 같아 품위 있는 명산에 왔다는 기분이 안 들 정도로 상흔이 난무하고 있었다. 태산 정상에 큰 바위에는 역대 황제들이 제사를 올린 후 남겼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그들의 자취를 엿볼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

자연 훼손으로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태산에 오를 때 비를 만나면 왕이나 황제가 된다는 전설이 있어 한국의 지도자들이 비 올 때 찾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에 우리는 비를 기다렸으나 날씨는 청명했다.

태산의 관광을 끝내고 케이블카로 하산하여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황하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황하는 대남시에 있었다. 대남시는 산업도시로 공기오염이 많은 도시였다. 건조한 날씨로 비가 온지 오래여서 우리는 물이 많은 지역을 골라서 황하를 답사하였다. 황하는 중국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며 중국 각 왕조가 황하에서 피고 졌다. 이러한 중국의 숫한 자연을 안고 중국인의 가슴에 어머니 강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중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우리가 일정에 없던 곳을 별도로 들른 곳으로 관광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문명의 발상지를 답사한다는 대에 의의를 두었다. 한국의 한강을 연상하며 답사했으나 서울의 한강교 같은 교량이 없이 부식된 부교가 가설되어 흔들거리고 있어서 조심스레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멀리 철교가 보이기는 했다. 누런 강물은 이름 그대로 황토 물이었다. 그 물 속에서 중국인들이 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가 황하인지 표지판도 없는데 조립식 입간판에 붉은 글씨로 黃河라고 쓴

간판이 보였다. 우리는 그거라도 아쉬워 그 간판에서 황하 방문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난 데 없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입간판 사용료를 달란다.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상술이었다. 한국 돈 만원을 주니 얼마든지 찍으란다. 이것이 중국 문명의 발상지요 중국인의 젖줄인 황하에서 벌어진 촌극 같은 일이었다.

호텔에 돌아와 여장을 풀면서 저녁 식사를 맞는다. 기름기가 많고 영양가가 높고 식당에는 커피가 없고 녹차뿐이다. 여류문인들이 한국에서 고추장이며 커피며 김치를 장만 해 와서 한국음식을 곁들여 먹으니 입맛이 좋았고 식사 후 별도로 커피타임을 가지니 문우들간의 정이 한결 무르익어 간다. 우리는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우리는 현지 가이드의 주의 사항을 기억에 담아 둔다.

이곳 호객들의 부르는 값이 들어설 때

는 3천원이던 것이 나올 때는 1천원이니 물건은 나올 때 사야 한다 걸인 한 명에게 적선을 하면 그것을 보고 20명의 걸인이 적선을 요구하며 달라붙어 아예 적선을 하지 말라 밤거리에는 불량이 많아 절대 혼자 외출은 삼가 해야 한다 날치기가 많아 귀중한 물건은 반드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되 뒤로 메고 다니면 남의 물건이고 옆으로 가면 받은 남의 것이고 반만 내 것이니 꼭 앞으로 메고 다닐 것

우리는 4박 5일의 여정으로 다음날은 생태공원을 둘러 산호초등의 진귀한 모습들도 보면서 자연의 신비에 빠져들기도 하며 야시장도 답사하고 공연도 즐기며 나머지 여정을 보내고 평택항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고국 땅에 발 디디는 듯 반가웠고 고향의 편안함을 느꼈다. 역시 여행을 나가봐야 고향이 좋고 가정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나 보다.

인천중회 부회장/소설작가 심명구

理總監	副會長	會長	顧問
事務長	事務長	事務長	事務長
敬善	龍輔	載鴻	永洪
載鴻	揆白	鳳求	允輔
載集	正一	廣燮	

理總監	副會長	會長	顧問
事務長	事務長	事務長	事務長
相憲	相榮	相直	相澤
宜杓	載錄	元植	凡宗
載萬	載凡	宗燮	

